

목포시, 도심 가로수 청결하게 관리한다

58개 구간에 20000여주 식재...은행나무 4000여주 20% 민원 발생 많은 상가·주택가 중심 은행나무 열매 사전제거

목포시가 가을철 도로변 악취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진동 장비를 이용해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시 가로수는 양로로, 백년로 등 58개 구간에 느티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등 20,000여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은행나무는 4,000여주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원 발생이 많은 상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제거하기 위해 18일부터 한차례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열매가 무르익는 10월 말경에 2차 걸쳐 작업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물들어 단풍이 아름답고 공해물질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병충해에 강하고 관리가 쉬워 가로수로 많이 심지만, 가을이 되면 암나무에서 은행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겨서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시는 생활민원 처리반 등을 운영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수목전정 및 제초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로수 2만주, 수벽 33km, 가로변 제초 16만㎡, 중앙분리대 11km, 도시공원 391만㎡, 녹지대 89만㎡, 도시숲 10만㎡, 주민센터 200개소가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살고 싶은 도시



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관내 염전 78개소 방사능 전수 검사 실시

“유해한 수산물 전면 차단에 최선”

영광군은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관내 허가된 염전 78개소 전체를 방문해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이번 방사능 검사는 올해 생산되어 창고에 보관중인 거래 직전 단계의 천일염이 대상이며, 국내 식품기준과 동일한 검사 기준을 가지고 방사능(요오드, 세슘)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검사결과는 3주 후에 관내 전광판 및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영광 천일염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3대 어장인 칠산바다 갯벌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소금으로 염분 비율이 낮고 미세알이 풍부하여 감칠맛이 뛰어나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우수한 영광 천일염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영광 천일염은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번 방사능 전수검사를 통하여 유해한 수산물을 전면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지도 선도마을, 탄소중립 마을로 선정

탄소 숲 조성 나무심기·주거 공간 LED 교체·탄소중립 실천 주민교육 등

신안군 지도읍 선도마을이 전라남도에서 공모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군은 탄소중립 실천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해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실천 생활화 확산을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조성사업은 '지도 선도마을'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대표 마을로 지정하여, 탄소 숲 조성 및 주민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 숲 조성 나무심기 △주거 공간 LED 교체 △탄소중립 실천 주민교육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람, 환경, 공간이 조화되는 그린 선도마을을 형성하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은 고효율 LED 조명 교체로 전기료 등 탄소배출 낮춤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

로 예상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주요 관광지인 선도마을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탄소중립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탄소중립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에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군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해제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무안군 해제면(면장 하영미)은 지난 15일 해제면 주민다목적센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67명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작업장별 안전사고 사례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안전사고 예방 워크북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만족도와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소통의 시간도 나누었다.

하영미 해제면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하고,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합평군, ‘대한민국 국향대전’ 관람객 맞이 ‘분주’



합평군이 전라남도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합평군 농업기술센터

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수작업으로 국화 줄기를 조형물에 고정하고 있으며 이 조형물들은 합평 엑스포 공원에 설치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 국화 재배에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합평군만의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국화를 재배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올 가을 정취와 국화의 향과 멋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국화 재배 등 국향대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뿐만 아니라 분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된다. 합평=김광훈기자

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

외국인 112명 60곳 조선기업과 연결...생활인구 유입 효과도

영암군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외국인의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10월부터 영암군이 시행한 이 사업은,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 생산 현장 요구 기술과 직무역량을 이들에게 사전 교육하고, 거주비자인 F-2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도와 영암군, 해남군이 함께 추진 중이다.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은 사업 배정 인원 112명을 모집해 지

역 조선기업 60곳에 채용을 연계했다. 모집인원 112명 중 외부 유입자는 70여 명으로 지역 내 생활인구를 유입 효과도 톡톡히 봤다.

전라남도도는 이달 22일 삼호읍 현대호텔비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사업 참여 기업체와 우수 인재의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청취 시간을 갖고, 내년 실시될 본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이지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업에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